

레코드 컨티뉴엄의 기록 평가 논리 분석*

- 라이프사이클과의 비교를 통한 핵심 요소 도출 -

A Study of Appraisal in Record Continuum Theory: Derivation of Key Element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Appraisal in Life Cycle Model

김 명 훈 (Myoung-hun Kim)**

〈 목 차 〉

I. 서론	IV. 레코드 컨티뉴엄 평가 논리상의 핵심 요소 도출
II. 라이프사이클과 평가 논리	V. 결 론
III. 레코드 컨티뉴엄 평가 논리의 전제: 기록 의미의 재해석	

요약: 본고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 논리를 분석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가 지닌 보다 근원적인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 논리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기존의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평가 논리 및 여기서 연유한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한 이론체계라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를 모색하는 합목적적 행위임을 감안할 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한 기록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한 재해석은 이전과는 다른 평가상의 논리들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라이프사이클 평가 논리와의 비교 및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록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평가 논리상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주제어: 평가, 레코드 컨티뉴엄, 라이프사이클, 기록, 아카이브

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raisal in record continuum theory is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 appraisal in life cycle model. In order to understand the more fundamental implications of appraisal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appraisal inherent in record continuum theory. Record continuum theory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appraisal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in that it is a theoretical system in opposition of the appraisal based on life cycle model and dualistic records management system resulting from it.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appraisal is a purposive act of seeking the meaning of record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meaning of records intended in record continuum theory enables us to derive the different appraisal logics than before.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comparison with the appraisal based on life cycle model and the new record concept presented in record continuum, the appraisal in record continuum theory is analyzed focusing on three aspects.

KEYWORDS: Appraisal, Record Continuum, Life Cycle, Record, Archiv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244).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sjmhwdhappy@hanmail.net / ISNI 0000 0000 5231 5101)

- 논문접수: 2022년 8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8월 28일 • 게재확정: 2022년 9월 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25-46,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25>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최근 디지털 환경을 맞아 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되고 있다. ICT 및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을 기반으로 전자기록의 유형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맥락 및 활용적 가치 역시 나날이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ISO 15489:2016에서는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편성해 평가의 개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ISO/TR 21946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부적인 평가 프로세스 역시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평가가 지닌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Gasiorowski-Denis, 2016). 즉 과거와 같이 역사적 가치 선별에 주안점을 둔 독립된 업무로서의 성격을 넘어, 여타 절차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토대가 되는 핵심 영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사후적으로 고정된 가치를 기록에 부여했던 과거와 달리 사전적으로 기록이 지닌 다원적 의미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록에 수록된 내용 분석에 앞서 기록이 생성된 맥락 분석을 평가의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 사료로서의 기록 선별에 주안점을 둔 방식을 지양하고, 조직 및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이 지닌 현용적 가치 역시 강조하고 있다. 기능평가(Functional Appraisal)라 지칭되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기존의 종이기록 평가와는 다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고, ISO 15489:2016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개념적 윤곽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가 지닌 보다 근원적인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엄(Record Continuum, 이하 컨티뉴엄으로 약칭)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 논리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으로의 패러다임 변환기에 관련 연구들을 집대성한 이론 체계이다(Harris, 2005, 161). 컨티뉴엄은 기존의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평가 논리 및 여기서 연유한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한 이론체계라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를 모색하는 합목적적 행위임을 감안할 때, 컨티뉴엄에서 의도한 기록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은 이전과는 다른 평가 논리들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 학계에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간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컨티뉴엄 관점에서의 평가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거나 기존의 라이프사이클과는 다른 평가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Flynn, 2001; Henry, 1998; Hofman, 2005; McKemmish, 1998; 2017; Reed, 2005b; Upward, 2000; Wickman, 1999). 이는 컨티뉴엄 이론의 난해성으로 인해 이론 자체의 소개 내지 해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행위에 대한 증거의 확보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아직 평가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데에서 기인

한 귀결로 볼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컨티뉴엄에서의 평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이승억(2001)은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컨티뉴엄 이론을 토대로 공공기록 평가의 기반이 되는 기록물분류 기준표의 특성 및 의의를 고찰하였고, 설문원과 이승억(2021)은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기록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명훈(2010)은 컨티뉴엄의 차원 1~4와 연계해 평가 논리를 살펴보았지만, 종이기록 시대 평가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던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대비해 평가 논리상의 핵심적인 요소까지는 상세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 논리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평가는 핵심적인 영역이지만 아직 이론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다(Cox, 2010, 228).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컨티뉴엄의 평가 사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 논리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라이프사이클의 평가 논리와의 비교이다. 현대 기록학의 평가 이론 및 방법론은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고, 아울러 컨티뉴엄은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반향으로 성립된 이론체계임을 고려할 때,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를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 평가 논리와의 비교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컨티뉴엄에서 제시한 기록의 속성에 대한 재해석이다. 평가는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를 모색하는 절차임을 염두에 둘 때, 컨티뉴엄에서의 기록의 속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평가의 방식 및 목적 역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라이프사이클과의 비교 및 기록의 속성과 관련지어 컨티뉴엄 평가 논리상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라이프사이클과 평가 논리

종이기록에 기반을 둔 현대적 의미의 기록 평가는 쉘렌버그가 체계화시킨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가치평가론에 의해 시작된다. 기록을 생명체에 대비시켜 기록의 가치 변화 및 이를 통한 기록관리 단계를 단순화시킨 라이프사이클은 방대한 양의 기록의 처리에 직면하여 무엇을 폐기하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출된 모델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록이 가치가 변화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라이프사이클에서는 현용-준현용-비현용이란 기록관리 단계를 설정한 후, 대량의 불필요한 대상을 처리하고 소수의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평가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¹⁾

20세기 이후 종이기록 평가의 근간을 형성했던 이러한 가치평가 논리의 본질은 크게 다섯 가지로

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명훈, 2021a, 15-18을 참조.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량의 기록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에서 평가 이론 및 방법론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양차 세계대전 후 정부 규모의 확대 및 이에 따른 기록 생산량의 급증 속에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한계를 지닌 상황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고 가치 없는 다수의 기록을 폐기할 필요성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된 현상이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기록 중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평가 방안 수립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Holmes, 1949, 344-346). 이러한 점에서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기록의 가치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의 가치 변화와 맞물려 현대 정부가 직면한 대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라 할 수 있다(Brothman, 2001, 53-54).

둘째, 라이프사이클은 기록의 가치를 이원적으로 구분 짓게 하는 논리를 제공한다(김명훈, 2021a, 18).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든 사물이 변화하듯 기록이 가치 역시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진리이다. 하지만 라이프사이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반된 가치를 제시한다(Brothman, 2001, 52-53). 이는 대량의 기록 처리에 직면해 기록의 가치를 양분화시켜 현용이 끝난 대부분의 기록은 폐기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선별하는, 기록관리 패턴을 단순화시킬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Lane & Hill, 2011, 14). 셋째, 이를 반영하듯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에서는 기록의 개념 역시 이원적으로 설정한다. 업무 중 생성된 모든 기록을 레코드(Record)로 명명했다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을 아카이브(Archive)로 구분하였다.

넷째, 결국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의 초점은 1차 평가가 아닌 2차 평가에 주안점이 놓이게 된다(김명훈, 2021a, 24). 본디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논리는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고 나머지 기록을 처리하려는 당시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행정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Evans, 1967, 46), 수많은 레코드 가운데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된다. 브룩스는 기록이 생성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닌, 생성된 직후 서로 간의 관련성을 유지한 채 해당 기록에 대한 완벽한 이해 속에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1차 평가의 중요성 역시 제기하지만(Brooks, 1940, 226), 기록의 관리 및 보존에 소요되는 자원의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아카이브를 선별하는 2차 평가가 평가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해왔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에서는 역사학 훈련을 받은 아키비스트에 의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선별이 평가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식되었다(Gracy II, 1987, 3).

다섯째, 이것은 결국 평가를 주축으로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를 고착시키게 된다. 방대한 양의 기록에 직면하여 형성된 현대 종이기록의 평가 목적이 대량의 기록 처리를 통한 비용의 절감 및 소수 아카이브의 영구적 보존인 상황에서, 당시 미국에서는 고안된 방안 중의 하나는 바로 레코드 센터(Record Center)의 도입이다(Angel, 1968, 5-12). 업무적 활용이 종료된 기록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레코드센터로, 레코드센터의 도입은 대량의 기록생산 환경에 직면하여

사무공간의 확보 및 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다(Dingwall, 2010, 141-142). 아울러 이와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것이 기록관리자(Record Manager)란 전문가 그룹의 형성이다(Evans, 1967, 47-48). 방대한 양의 기록 처리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대 로마시대 이래로 사라졌던 현용기록관리란 기능이 별도의 영역으로 부활하게 되었고(Duranti, 1989, 9-10), 기록관리자는 기존의 아키비스트와는 다른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선별을 담당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록관리자 간의 양분된 업무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Dingwall, 2010, 142).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라이프사이클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제는 현용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단계와 아카이브관리(Archive Management) 단계로 양분화되며, 기록관리 주체 역시 전자를 담당하는 업무 행정가로서의 기록관리자 그룹과 후자를 담당하는 역사가로서의 아키비스트로 양분화된다. 기록관리자는 대량의 불필요한 기록 처리 및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절감시켜주며, 아키비스트는 항구적으로 보존할 소수의 아카이브를 선별해 주는 것이 그것이다(Grover, 1951, 9-10). 하지만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소수의 아카이브 선별을 통한 항구적 보존을 담당하는 아카이브관리 단계에 놓이게 된다. 현용기록관리의 목적은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가 부재한 기록들을 적재적소에 폐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Hammitt, 1965, 219; Schellenberg, 2002, 43).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한 현대 종이기록의 평가에서는 기록이 생성된 배경 내지 연원에 앞서, 개별 기록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된다. 또한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2차 평가를 정점으로 기록의 생성부터 최종 보존에 이르는 단선형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며(McLeod, 1996, 4-5), 분류 논리 역시 영구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을 대상으로 조직구조와 연계한 출처 주의를 사후적으로 적용시키게 된다.

Ⅲ. 레코드 컨티뉴엄 평가 논리의 전제: 기록 의미의 재해석

평가가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행위라면, 기록의 속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평가의 방식 및 목적 역시 변화시킨다. 라이프사이클에서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이원적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타난 기록의 내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의 목적 역시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로 인해 영구적으로 보존할 소수의 아카이브 선별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기존의 기록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롭게 재해석한다. 전자기록이 지닌 물리적 객체로서의 성격 소실은 행위의 결과로서 기록의 본성 및 증거로서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이다(McKemmish, 1994,

200-201). 이에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조직 운영의 메커니즘 및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기록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근원적인 사고를 시작하게 된다.

우선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종래 라이프사이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의 상반된 가치를 상징하고,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서로 엄격히 분리된다는 가정하에 기록을 레코드와 아카이브라는 이원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방대한 양의 기록 처리에 직면하여 활용이 종료된 대부분의 기록을 폐기한 후 소수의 아카이브를 한정시킨다는 라이프사이클이 지닌 실무적 발상에 기인한 결과이다(김명훈, 2021b, 6-7).

이에 반해 컨티뉴엄에서는 생산과 동시에 모든 기록은 지속성(Enduring Nature)을 보유한다고 파악한다(McKemish, 1997). 기록은 시간과 연계된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 개념으로 한정지을 수 없고, 특히 전자기록이 생성·활용되는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환경을 고려할 때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과 연계시켜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시간 및 공간의 통합에 기반을 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구분 없는 지속적 의미를 지닌 단일의 개념으로 재해석한다(Upward, 2000, 117-119).

또한 컨티뉴엄은 기록의 다원적 가치를 강조한다. 소위 1차 및 2차 평가라는 일회성 평가 행위를 통해 고정된 가치를 부여했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컨티뉴엄에서는 다원적인 맥락과 연계되어 기록을 다원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기록을 동시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한다. 기록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덧입혀 분리된 가치를 상징했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컨티뉴엄에서 기록은 생성과 함께 동시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파악된다(McKemish, 2001, 349). 라이프사이클에서는 대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간 및 공간의 분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위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는 시간의 흐름과 결부되어 명확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기록이 관리·활용되는 공간적 개념 역시 분리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라이프사이클에서 상정한 시공간의 분리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록은 과연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만 가치가 변화하는지, 또한 이와 결부되어 나타난 명확한 공간적 경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이다(Upward, 2000, 119-121).

물론 시간에 따라 기록의 가치는 변화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둔 기록의 가치 구분은 항상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기록의 가치 변화는 반드시 시간에 얽매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의 분리된 가치가 아닌 동시적 가치를 강조한다. 기록은 행위를 재현하는 흔적이자 업무 및 조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기억이자 총체적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전화되는 동시적 가치는 지닌다는 것이다(McKemish, 1997).

무엇보다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이 지닌 증거(Evidence)로서의 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행위에 증거는 예전처럼 종이기록을 이관받음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에 기반을 둔다(Piggott, 1998, 346). 종래 라이프사이클에서는 업무 종료 후 더이상 활용적 가치가 없는 업무의 부산물을 받아

기록관리 절차가 시작되었다(Dingwall, 2010, 140). 또한 소수의 아카이브 선별에 초점을 둔 관계로 인해 증거로서 보다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내용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쉘렌버그 역시 2차적 가치 중 하나로 증거적 가치(Evidential Value)란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만(Schellenberg, 2005, 34-36), 이는 특정 기관의 조직 및 기능과 관련된 과거의 사실 내역을 의미하는 역사 내지 연구적 목적을 위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다(Lybeck, 2000, 17-19).

하지만 컨티뉴엄은 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기록관리 절차를 상정한다. 내용과 구조, 맥락이 분리된 전자기록의 특성상 행위의 증거로서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관건으로, 증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역사 내지 연구적 활용 역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Flynn, 2001, 84). 이러한 논리에서 컨티뉴엄에서는 내용적 가치에 초점을 두었던 기록 개념을 지양하고, 다원적이고 복잡화된 기록 생산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 개념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게 된다.²⁾

이와 같은 컨티뉴엄의 기록에 대한 재해석은 평가의 방식 및 목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적으로 평가 방식은 ‘사후적인 내용 분석’에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으로 변화하게 되고, 평가의 목적 역시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대상의 ‘선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획득’에 우선적인 초점이 놓이게 된다. 그리고 평가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록의 다원적 맥락 및 의미 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IV. 레코드 컨티뉴엄 평가 논리상의 핵심 요소 도출

1. 사후적 내용분석 vs. 사전적 업무분석

컨티뉴엄에서 기록의 평가 논리는 우선적으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과 함께 출발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변화와 맞물려 사후적으로 내용 중심의 평가를 수행했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컨티뉴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Wickman, 1999, 119). 이는 전자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전자기록의 평가에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기록 평가의 전제가 되는 신뢰 가능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은 업무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속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된다. 디지털 객체의 특성상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이 용이치 않으며, 아울러 디지털 객체들이 생성·유통되는 다원적인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맥락의 파악이 용이치 않게 된다. 따라서 전자기록관리는 복잡화된 맥락 파악을 통해 업무 행위를 고스란히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2) 컨티뉴엄에서 상정하는 기록의 의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김명훈, 2021b를 참조.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 행위를 반영하는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를 연계시키게 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사전적인 업무 분석의 필요성이 도출되게 된다(김명훈, 2009, 92-98).

또 다른 하나는 기록의 가치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원적 생산맥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복잡하면서도 다변화된 업무 메커니즘을 지닌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 파악이 어려우며, 다원적인 맥락이 전제되어야 해당 기록이 지닌 의미 내지 가치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업무에 대한 분석은 맥락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되며, 기존의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기록은 생산 이전단계부터의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Bearman, 1994, 284-285). 여기서 기록을 생성시킨 다원적인 맥락 확보에 평가상의 강조점이 놓이게 되는 것으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은 평가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Bantin, 1999, 11-12; Menne-Haritz, 2000, 74-81).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컨티뉴엄에서는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이 평가의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된다. 기록의 증거적 속성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 컨티뉴엄에서는 수많은 행위의 흔적 중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 확보를 위해, 아울러 다원적인 맥락 속에서의 기록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생성 모태로서의 업무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명훈, 2010, 142).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분석을 기반으로 차원 1에서 생성된 수많은 도큐먼트 가운데 증거로서의 기록을 레코드키퍼시스템 내로 획득해 조직화시키게 되며, 여기서 어떠한 도큐먼트를 기록으로 획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기능 분석을 통한 평가가 수행되게 된다(Wickman, 1999, 122-123).

이러한 사전적 업무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연계된 유기적 업무로 자리하게 된다. 내용 분석에 기반을 둔 라이프사이클 논리에서의 평가는 기록의 활용이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독립적인 업무였지만,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분류 체계 수립 및 처분 등 여타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된 유기적 업무로 설정된다. 또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은 컨티뉴엄 평가의 또 다른 핵심 논리인 획득 및 메타데이터의 토대가 된다. 수많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조직 및 업무를 위해 어떠한 대상이 기록으로 포착되어야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해준다는 점에서 획득의 기반이 되며, 아울러 다양한 행위 주체 및 맥락과 연계된 기록의 다원적인 의미 및 가치 파악을 위한 도구로서의 메타데이터 역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을 토대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2. 선별 vs. 획득

컨티뉴엄에서 상정하는 평가의 두 번째 핵심 논리는 획득(Capture) 개념이다. 컨티뉴엄에서는 평가를 어떠한 기록이 획득되어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절차로 개념화한 것처럼(McKemish, 1998), 조직과 업무,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대상을 레코드키퍼 체계 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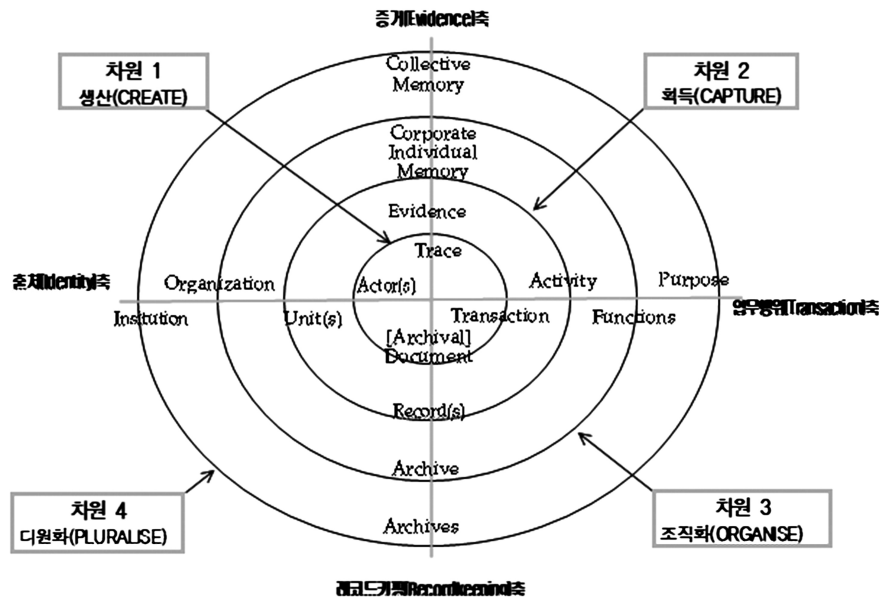
사전적으로 획득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컨티뉴엄은 사회적·조직적 행위의 맥락 속에서 생성된 흔적들을 고정시켜 증거로서 획득함과 동시에, 1초이건 몇천 년이건 개인·조직·사회에 대한 활용 가치를 지니는 동안 접근 가능하게 하는 유기적인 프로세스의 구축을 지향한다(McKemmish, 2001, 335-336). 아울러 컨티뉴엄에서 레코드키퍼는 총체적인 사회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획득해 관리·보존하는 행위로 인식된다(McKemmish, 1996, 174-187).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는 내용분석을 통해 소수의 영구보존 대상을 사후적으로 선정하는 선별(Selection)이 아닌, 사전적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조직 및 업무, 사회에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한다는 획득 절차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Hofman, 2005, 137).

획득을 평가의 출발점으로 상정한 컨티뉴엄의 사고는 새로운 공공기록관리 체제를 모색했던 호주의 역사적 상황에 기원을 둔다(김명훈, 2021a, 28-29). 1950년대 국립도서관 소속의 매뉴스크립트 수집부서로서의 역할을 탈피하고 공공기록관리 체제 수립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젠킨슨과 쉘렌버그의 평가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20세기 초반 젠킨슨이 직면한 상황과는 다른 호주 정부 규모의 확대에 따른 기록의 양적 증가 상황에서, 기록은 자연스럽게 생성·축적되며 생산자에 의해 폐기된 불필요한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카이브로 전환된다는 젠킨슨의 사고를 거부한다. 업무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행위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의식적으로 획득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Maclean, 1956, 2-6).

아울러 쉘렌버그의 평가 논리 역시 거부한다. 1950년대 공공기록관리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했던 호주에서는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레코드키퍼 관념이 자리해왔으며(Piggott, 1998, 348), 생산부터 최종 보존에 이르는 연속적인 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지향하였다(Stuckey, 1994, 40).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가치평가는 대량의 기록을 폐기한 후 생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 선별에 초점을 맞춘 논리로, 결과적으로 이원화된 기록 개념 및 양분화된 공공기록관리 체제를 고착시킨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호주에서는 기록과 업무를 연계시킨 후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위 내역을 체계적으로 획득해 유지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지향하게 되었다(Upward, 1994).

평가상의 이러한 획득 개념은 20세기 말 전자기록 환경에 대비한 컨티뉴엄 이론의 정립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유한 귀결이다. 하나는 종이기록과는 다른 전자기록의 특성이다.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전자기록은 내용, 맥락, 구조가 분리되어 존재하며 다자간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복잡한 맥락으로 인해 증거성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신뢰 가능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이 전자기록관리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Bearman, 1995, 391-406). 또 다른 하나는 기록의 속성에 대한 재해석이다. 컨티뉴엄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아닌 논리적 실체로서 기록의 본성 및 증거로서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한다. 즉 증거적, 처리행위적, 맥락적 속성을

기록의 근본 속성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업무 중 생성된 수많은 비트스트림 중 다원적 맥락과 연계시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을 레코드키퍼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상정한다.



〈출처〉 McKemmish, 2017, 138, 그림 4-1

〈그림 1〉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 도해

평가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획득 절차는 우선적으로 〈그림 1〉에 제시된 컨티뉴엄 도해상의 차원 1 및 2를 통해 수행된다. 차원 1인 생산(Create)은 개별 활동이 이루어져 흔적(Trace)이 생성되는 지점이다(Upward, 2000, 121-122). 컨티뉴엄에서는 이러한 흔적을 도큐먼트(Document)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종이에 문자로 작성된 내용전달 수단만이 아닌 행위 내역을 재현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Hartland, McKemmish, & Upward, 2005, 75-76). 하지만 행위에 대한 흔적으로서의 모든 도큐먼트가 기록으로 획득되어 관리되지는 않는다(Reed, 2005a, 19-20).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전자기록의 특성에 근거한 논리이다. 수많은 시스템 및 컴퓨팅 기기들을 통해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해 방대한 양의 0과 1의 비트스트림이 생성·유통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스트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니다(Duranti, Eastwood, & MacNeil, 2002, 2-3). 기록의 기본 요소인 내용, 맥락, 구조가 분리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수행된 다원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생산맥락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행위의 흔적 가운데 행위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는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가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사후적인 선별이 아닌 사전적인 획득 행위로 재해석된다. 라이프사이클에서 평가는 항구적 보존가치를 지닌 영구보존 기록을 선별하는 행위로 자리해왔다(SAA, 2005). 브룩스 역시 대량의 기록 중 소수의 영구보존 대상을 결정하는 행위로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Brooks, 1940, 221-222),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평가 논리에서는 기록의 내용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후적으로 연구적 가치를 지닌 대상의 선별을 평가의 핵심으로 상정해왔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이미 생성된 기록을 대상으로 가치를 선별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업무를 위해 필요로 되는 어떠한 기록이 획득되어야 하며 또한 얼마만큼의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되어야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로 상정된다(Henry, 1998, 318-319). 바로 여기서 내용에 기반을 둔 사후적인 선별이 아닌 사전적인 업무분석을 통한 획득의 필요성이 도출되며, 아울러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기록이 생성되는 다원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지닌 비트스트림을 기록으로 획득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을 형성하게 된다.

3. 평가와 메타데이터

종이기록 시대의 기술은 사후적으로 정보를 포착해 영구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을 설명해주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평가와 연관성을 지녀왔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 메타데이터는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 상정한다. 먼저 메타데이터는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컨티뉴엄의 개발 목적은 다원화된 기록 생성환경에서 신뢰 가능한 증거를 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 구축이라 할 수 있다(Upward, 2000, 116-117).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차원 1에서 생성된 행위의 흔적인 수많은 비트스트림 가운데, 이러한 행위에 관한 증거로서의 기록으로 획득되기 위해 차원 2에서 기록화된 정보 및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산맥락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Upward, 2000, 121-122). 내용, 구조, 맥락이 분리된 전자기록의 특성으로 인해 맥락 및 구조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 없이는 기록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메타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행위의 흔적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 확보 없이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컨티뉴엄에서 메타데이터는 평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록이 지닌 의미 확보를 위해서도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물리적 객체가 아닌 논리적 실체로, 종래와 같은 아카이브와 레코드의 구분 없는 증거 및 기억으로서의 활용적 측면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기록의 내용에 끊임없이 확장되는 맥락 메타데이터들과 연계시킴과 더불어, 시간 및 공간을 가로질러 접근성 및 활용성을 지니는 동적

객체로 파악한다. 이에 컨티뉴엄에서는 역동적인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기록이 생성·유통·활용되는 전자기록 환경에서 메타데이터를 기록 및 기록 생성 모태로서의 업무, 기록 생산자인 출처 간의 논리적 연계관계를 창출시키는 기본 도구로 상정하며, 아울러 기록이 지닌 의미 확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맥락 메타데이터를 사전적으로 획득하게 한다(McKemmish et al., 1999, 7). 나아가 컨티뉴엄에서 메타데이터는 행위에 관한 흔적인 0과 1의 비트스트림에 그것이 생성된 업무적 사회적 맥락을 부여해 신뢰성 있는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이 조직 내지 사회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한 의미를 부여하고 활용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McKemmish et al., 1999, 8).

셋째, 컨티뉴엄 논리에서 메타데이터는 기록의 의미를 확장시켜준다. 컨티뉴엄에서 기록은 끊임 없이 확대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연계됨으로써 시공간을 통해 그 의미 및 활용적 가치를 다원적 동시에 지니게 되는 동적 객체로 인식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에 고정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했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컨티뉴엄에서는 차원을 달리하며 처리행위, 활동, 기능, 목적으로 확대되는 업무상의 맥락과 연계되어 기록은 다원적이면서도 동시적인 의미 내지 가치를 지니게 되며, 바로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생성과 동시에 부단히 새롭게 재탄생되는 기록의 의미 내지 가치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준다(McKemmish, 2017, 139).

이러한 다원적이면서도 동시적인 기록의 의미 모색을 위해 호주 레코드키퍼링 메타데이터 스키마(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chema, 이하 RKMS로 약칭)에서는 컨티뉴엄 이론을 기반으로, 업무·조직·기록을 정점으로 한 메타데이터 엔티티 및 요소들을 제시해준다. 컨티뉴엄에서는 수많은 비트스트림 중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며, 기록이 생성되는 복합적 현실 속에서의 기록의 다원적 활용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Flynn, 2001, 81). 따라서 컨티뉴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록 생성 모태로서의 업무, 업무를 수행하는 출처로서의 조직, 그리고 이의 결과로 생성된 기록을 핵심 엔티티로 설정한 후, 이들 간의 다원적인 관계를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통해 상호 연계시키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컨티뉴엄에서 기록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업무, 조직, 기록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아울러 기록의 증거성 및 다원적 의미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을 중심으로 조직적 연원으로서의 맥락 및 기능적 연원으로서의 맥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Reed, 2005b, 10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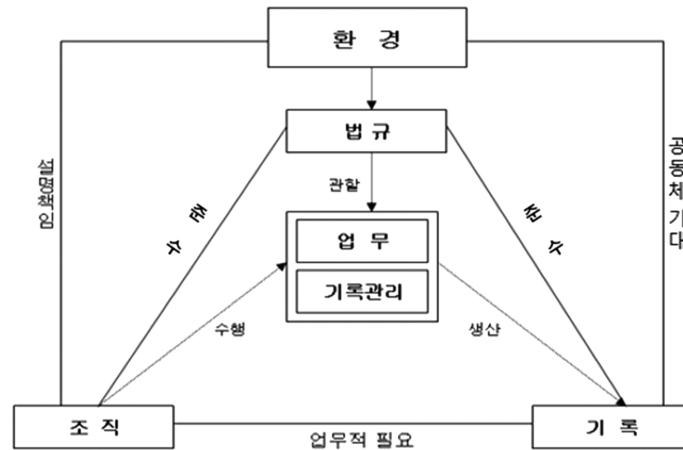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RKMS에서는 업무, 조직, 기록이란 세 개의 핵심 엔티티를 중심으로, 각 엔티티별 세부적인 하위 계층들을 제시한다. 각 엔티티별 하위 계층들은 <그림 1>에서 제시한 컨티뉴엄 모델상의 축선 및 차원상의 요소들과 연동하여 구성된다. 즉 업무 엔티티 계층은 컨티뉴엄 모델상의 업무행위축(Transaction Axis)과, 조직 엔티티 계층은 출처축(Identity Axis)과, 그리고 기록 엔티티 계층은 레코드키퍼링축(Recordkeeping Axis) 상의 요소들과 연동하게 된다. 먼저 업무 엔티티는 행위가 수행되고 이를 통해 기록이 생성된 맥락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컨티뉴엄 모델상의 업무행위축과 연동하여 4개의 계층을 형성하는데, 업무 프로세스상의 행위, 의사결정,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해당하는 처리행위, 처리행위들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 활동들을 통해 수행되는 조직의 기능, 그리고 기능들을 통해 달성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사회적 기능 내지 목적에 해당하는 광의 기능으로 구성된다(McKemmish et al., 1999, 14). 이러한 업무 엔티티는 기록의 생산맥락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적 출처 개념으로, 기록이 생성된 행위 및 기능, 프로세스 간의 상호관계가 반영된 가상적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McKemmish et al., 1999, 12). 기록관리 엔티티는 업무 엔티티 산하의 4개 계층과 연계한 기록관리 상의 층위를 지닌다. 이에 RKMS에서는 업무 엔티티와 연계된 하위 개념으로 기록관리 엔티티를 편입시키면서도 업무 엔티티와는 분리시켜 구성하였다. 이는 기록을 생산·관리·활용시키는 독자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활동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McKemmish et al., 1999, 14).

조직 엔티티는 기록을 생성시킨 업무행위의 주체로, 기록의 생성, 관리, 활용에 책임을 지는 출처에 해당한다. 컨티뉴엄 모델상의 출처축에 해당하는 이 엔티티는 업무 엔티티와 연계되어, 처리행위를 수행한 최하위 주체인 행위자,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부서, 기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인 조직,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범사회적으로 확대된 의미로서의 사회적 기구란 계층을 지니게 된다(McKemmish et al., 1999, 14). 조직 엔티티는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규(Mandate)의 영향을 받으며, 법규를 통해 부여된 권한에 대한 설명책임을 기록을 통해 구현하게 된다(McKemmish et al., 1999, 12-13).

세 번째로 기록 엔티티는 업무행위를 통해 수행된 결과에 관한 것이다. 컨티뉴엄 모델상의 레코드 키퍼축 및 증거축과 연동하여,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획득된 개별 기록을 의미하는 기록 객체, 시리즈, 파일 등과 같은 기록을 유기적으로 그룹화시킨 기록 집합체, 조직 단위의 기록 전체를 의미하는 조직 아카이브, 그리고 조직 차원의 의미를 넘어 범사회적으로 기록의 의미가 확대된 대상을 의미하는 공동 아카이브즈란 네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McKemmish et al., 1999, 14). 이러한 기록 엔티티는 업무의 근거가 되고 조직에 이양된 권한의 토대가 되는 법규에 대해 업무의 수행내역을 설명함과 아울러, 업무 엔티티에 대한 신뢰 가능한 증거이자 조직 엔티티가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McKemmish et al., 1999, 12).

이와 같이 컨티뉴엄에서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업무, 기록, 조직 간의 복합적인 연계성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을 위해, 또한 기록이 생성·활용되는 복합화된 현실에서 컨티뉴엄에서 지향하는 기록의 다원적인 의미 창출을 위해, 기록을 중심으로 업무와 조직 간의 다양한 연계관계 창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업무는 기록이 생성되는 연원으로서의 기능적 출처로서 그리고 조직은 기록의 의미 및 활용성이 모색되는 조직적 출처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며, 각 엔티티들은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엔티티의 계층 사이에도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기록이 지닌 증거성 및 다원적인 맥락을 생성시키게 된다.



〈출처〉 McKemmish et al., 1999, 12-13, Figure 1~4를 통해 재구성.

〈그림 2〉 메타데이터 엔티티와 기록 평가 준거

넷째,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종국적으로 평가를 위한 기록의 가치 준거를 제공해준다. 기록을 조직 및 업무, 법규와 연계시켜 다원적 맥락 속에 기록의 의미를 부여하는 메타데이터는, 역으로 조직 및 업무, 법규를 위한 기록의 활용적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는 말이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법규는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 및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조직과 업무는 법규를 준수(Compliance)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책무의 준수는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 내역을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한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는 면에서 기록은 법규 준수를 위한 활용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Bearman, 1994, 57-61). 또한 조직은 특정 환경에 적응하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제해 운용된다는 점에서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은 환경에 적응하며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당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 설명할 책무를 지니며, 여기서 조직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한 활용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Palmer, 2000, 61-63). 그리고 기록은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활용됨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역으로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며(Hare, 1998, 113),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은 조직이 영위되는 총체적 사회를 위한 정체성 및 집단기억 형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게 된다(Kathryn, 2002, 71-7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컨티뉴엄에서 메타데이터는 기존의 기술 개념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시킨다(Hurley, 1998, 74).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과 맥락 간의 관계는 종이기록 시대에 비해 보다

다원적이며 복잡화되기 때문이다. 종래 종이기록 환경에서 기록의 기술은 비현용단계에서 영구 보존 대상으로 선별된 기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왔으며, 아울러 기록 속에 존재하는 각종 정보들을 인위적으로 포착하여 기록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사후적 행위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 메타데이터는 사전적으로 확보되어 기록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본성 및 신뢰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의 전 생애 동안 보다 다원적이고 풍부한 맥락과 연계시킴으로써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의미 및 활용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현용과 비현용 단계의 구분 없는 통합된 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컨티뉴엄에서 기술은 비현용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사후적인 절차가 아닌, 컨티뉴엄의 모든 차원에 걸쳐 기록이 생성된 업무적·사회적 맥락과 기록을 메타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연계시키는, 항시적으로 반복되는 레코드키퍼링 절차로 파악할 수 있다(McKemish et al., 1999, 6-7).

V. 결 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기록의 속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평가의 방식 및 목적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를 라이프사이클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대량의 기록에 직면하여 관리·보존해야 할 의미를 지닌 기록을 한정시킨다는 점은 양자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의 목적 및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라이프사이클에서의 평가와 엄격한 차이를 지닌다. 이는 평가의 대상인 기록을 파악하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업무 부산물로서의 기록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고 기록의 증거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컨티뉴엄에서는 이원적 기록 개념을 지양하고,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구분 없는 단일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연유된 귀결로 컨티뉴엄에서는 이원화된 가치 개념을 지양하고 1차적 2차적 가치의 구분 없는 기록의 동시적 가치를 강조하며, 아울러 역사사료 중심의 평가 논리를 지양하고 기록이 지닌 다원적 가치 역시 중시한다.

이러한 기록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는 평가의 목적 및 방식 변화로 이어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가치가 변화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사후적인 내용 중심의 평가를 수행했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의 가치 판단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다원적인 생산맥락 확보를 위해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과 연계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생산 목적과는 상관 없는 연구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의 선별을 평가의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했던 라이프사이클과 달리, 컨티뉴엄에서는 업무 및 조직, 사회에 의미를 지닌 기록을 업무기능 분석과 연계해 사전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평가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하고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메타데이터는 평가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상정된다.

이와 같은 평가의 목적 및 방식 변화는 중국적으로 기록관리체제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본디 라이프사이클의 평가에서는 대량의 기록을 폐기하고 소수의 아카이브 선별에 초점을 맞춘 관계상 이원화된 평가 단계가 설정되었고, 결국 평가를 주축으로 현용기록관리 단계와 아카이브관리 단계로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가 고착화 되었다. 하지만 컨티뉴엄에서는 평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기록 관리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및 기록의 다원적인 가치 모색을 모토로 하는 컨티뉴엄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 이전에 수행되는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록 관리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된 유기적인 절차로 설정되며, 이를 토대로 현용기록관리 단계와 아카이브 관리 단계의 단절 없는 연속적인 기록관리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결국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가치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라이프사이클에서의 평가 목적은 대량의 기록 폐기와 함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이었으며, 이에 시간의 흐름과 결부된 1차 및 2차관 일회성 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에 반영된 가치를 고정화시켰다. 하지만 컨티뉴엄의 평가에서는 고정화된 기록의 가치를 거부하며, 다원적인 맥락에서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 및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은 인간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범위를 확대시켜주며, 이는 곧 기록이 지닌 의미의 폭 역시 확대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컨티뉴엄의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발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컨티뉴엄의 평가 사고는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게 한다. 기록을 이원적 개념으로 파악한 라이프사이클에서 아카이브는 연구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로 인해 선별된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수많은 기록 중 생산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가치를 기준으로 기록의 의미를 고정화시켜 소수의 기록만을 보존한다는 전략적 발상에 기인한 귀결이다. 반면 컨티뉴엄에서 개념화한 아카이브의 의미는 이와 전적으로 상이하다. 업무 및 조직, 사회는 다원화 되고 복잡화된 환경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특히 ICT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변화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곧 업무적, 조직적, 사회적 활용을 위해 기록이 지닌 가치 역시 부단히 변모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컨티뉴엄에서 상정한 아카이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변화하는 업무적 조직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반복적, 순환적 절차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컨티뉴엄에서의 평가는 업무가 종료된 기록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이 아닌, 기록이 생성되는 환경 및 업무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해 역동적인 활용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 이전부터 기록을 둘러싼 제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는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 환경으로 변이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형성된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향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분석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에 컨티뉴엄의 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수행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기록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컨티뉴엄은 기록이 생산되는 복합적 현실 속에서의 활용 목적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며, 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함과 동시에 업무 및 조직, 사회에 대해 지니는 다원적 활용가치의 모색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기록은 행위에 대한 증거이자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나아가 총체적 사회에 대한 집단기억으로서 의미가 확대된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설명에 그칠 뿐 기록이 지닌 의미의 구체적인 전이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Piggott, 2005, 65).

컨티뉴엄에서 지향하는 동시적 가치의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기든슨의 시공간 사고에 기반을 둔 기록의 동시적 가치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다(Upward, 2000, 125). 동시적 가치 논리는 곧 가치의 동시적 평가 논리와 등치되지는 않는다. 라이프사이클에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가치를 이원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기 때문이다.

기록이 지닌 가치의 범사회적 확산 및 활용을 의도한 차원 4의 다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차원 4는 기록이 지닌 의미 내지 가치가 항상 새롭게 재해석되어 활용된다는 컨티뉴엄의 사고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론 및 방법론적으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Bettington, 2004, 48, 66; Piggott, 2005, 65).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의 다원적 활용을 강조하는 컨티뉴엄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원 4의 다원화 절차에 대한 실제 방안 수립 및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 김명훈 (2010). 레코드 컨티뉴엄과 평가, 그리고 기록콘텐츠: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관리연구, 41(3), 131-153. <https://doi.org/10.1633/JIM.2010.41.3.131>
- 김명훈 (2021a).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에 관한 연구: 라이프사이클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8, 5-3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 김명훈 (2021b). 전자기록 환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의 의의와 한계: 기록의 의미 및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16.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3.001>

- 설문원, 이승억 (2021).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 기록학연구, 67, 57-97.
<https://doi.org/10.20923/kjas.2021.67.057>
- 이승억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https://doi.org/10.20923/kjas.2001.4.031>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이원영 옮김(2002). *현대 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오향녕 옮김 (2005). *현대 공공기록의 평가. 기록학의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 Angel, H. (1968). Archival Janus: The Records Center. *American Archivist*, 31(1), 5-12.
- Atherton, J. (1985). From life cycle to continuum: some thoughts on the records management-archives relationship. *Archivaria*, 21, 43-51.
- Bantin, P. C. (1998). Strategies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a new archival paradigm? an affirmation of our archival traditions?. *Archival Issues*, 23(1), 17-34.
- Bearman, D. (1994). *Electronic Evidence: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on.
- Bearman, D. (1995). Archival strategies. *American Archivists*, 58(4), 380-413.
- Bettington, J. (2004). Standardised recordkeeping: reality or illusion?. *Archives & Manuscripts*, 32(2), 46-69.
- Brooks, P. C. (1940). The selection of records for preservation. *American Archivist*, 3(4), 221-234.
- Brothman, B.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48-80.
- Cox, R. J. (2010). *Appraisal and the Future of Archives in the Digital Era, The Future of Archives and Recordkeeping*. Hill, Jennie ed., London: Facet Publishing.
- Dan, K. (2002). Acquisition, Appraisal and International Standard ISO 15489. *Comma*, 2002(1-2), 71-74.
- Dingwall, G. (2010). Life Cycle and Continuum: A View of Recordkeeping Models from the Postwar Era.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Eastwood, Terry and MacNeil, Heather eds.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 Duranti, L. (1989). The odyssey of records management. part ii : from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Records Management Quarterly*, 23(October), 3-11.
- Duranti, L., Eastwood, T., & MacNeil, H. (2002).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Electronic*

- Record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Evans, F. B. (1967).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variations on a theme. *American Archivist*, 30(1), 45-58.
- Flynn, S. J. A. (2001). The records continuum model in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 79-93.
- Gasiorowski-Denis, E. (2016). Records Management in the Digital Age. Available: http://www.iso.org/iso/home/news_index/news_archive/news.htm?refid=Ref2072.
- Gracy II, D. B. (1987). Is there a future in the use of archives?. *Archivaria*, 24, 3-9.
- Grover, C. (1951). Recent developments in federal archival activities. *American Archivist*, 14(1), 3-12.
- Hammit, J. J. (1965). Government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ment. *American Archivist*, 28(2), 219-222.
- Hare, C. E. (1998). Records management in the next millennium: conference report. *Records Management Journal*, 8(2), 113-117.
- Harris, V. (2005). Recordkeeping and records continuum thinkers: examining a seminal Australian text. *Archives & Manuscripts*, 33(2), 160-170.
- Hartland, R., McKemmish, S., & Upward, F. (2005). Document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Henry, L. J. (1998). Schellenberg in cyberspace. *American Archivist*, 61(2), 309-327.
- Hofman, H. (2005). Archive.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Holmes, O. W. (1949). The national archives at a turn in the road. *American Archivist*, 12(3), 339-354.
- Hurley, C. (1998). The making and keeping of records(1): what are finding aids for?. *Archives & Manuscripts*, 26(1), 58-77.
- Lane, V. & Hill, J. (2011).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Situating The Archive and Archivists. *The Future of Archives and Recordkeeping: A Reader*. Hill, J. ed. London: Facet Publishing.
- Lybeck, J. (2000). Appraisal 2000: A Project of the Finnish National Archives and Its

- International Context. Principles of Appraisal and Their Applica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 European Models an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DLM-Experts' Meeting in Tampere, Finland, November 11-12, 1999. Valtionarkisto: National Archives of Finland.
- Maclean, I. (1956). Trends in organising modern public records with special reference to classification needs. *Archives & Manuscripts*, 1(3), 1-17.
- McKemmish, S. (1994). Are Records Ever Actual?.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mish, S., Piggott, M. eds. Clayton: Ancora Press & Australian Archives.
- McKemmish, S. (1996). Evidence of Me.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5(3), 174-187.
- McKemmish, S. (1997).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 Continuum of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Records Management Association of Australia 14th National Convention, 15-17 September 1997.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conference_contribution/Yesterday_today_and_tomorrow_a_continuum_of_responsibility/4037433
- McKemmish, S. (1998). The Smoking Gun: Recordkeeping and Accountability.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conference_contribution/The_smoking_gun_recordkeeping_and_accountability/4037394
- McKemmish, S. (2001). Placing records continuum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1(4), 333-359.
- McKemmish, S. (2017). Recordkeeping in the Continuum: An Australian Tradition. Research in the Archival Multiverse. Gilliland, A. J., McKemmish, S. & Lau, A. J. eds. Clayton: Monash University Publishing.
- McKemmish, S., Acland, G., Ward, N., & Reed, B. (1999). Describing records in context in the continuum: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chema. *Archivaria*, 48, 3-37.
- McKemmish, S., Reed, B., & Piggott, M. (2005). Archive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McLeod, J. (1996). The record's lifecycle: myth, mantra or misnomer. *Records Management Journal*, 6(1), 5-12.

- Menne-Haritz, A. (2000). Appraisal and Disposal of Electronic Records and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ppraisal for Access-Not for Oblivion. Principles of Appraisal and Their Applica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 European Models an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DLM-Experts' Meeting in Tampere, Finland, November 11-12, 1999. Valtionarkisto: National Archives of Finland.
- Nesmith, T. (2008). Re-exploring the continuum, rediscovering archives. *Archives & Manuscripts*, 36(2), 34-53.
- Palmer, M. (2000). Records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vs. corruption, fraud and maladministra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10(2), 61-72.
- Piggott, M. (1998). The history of Australian record-keeping: a framework for research.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7(4), 343-354.
- Piggott, M. (2005). Building collective memory archives. *Archives & Manuscripts*, 33(1), 62-83.
- Reed, B. (2005a). Reading the records continuum: interpretations and explorations. *Archives & Manuscripts*, 33(1), 18-43.
- Reed, B. (2005b). Record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 Piggott, M., Reed, B., Upward, F.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SAA (2005).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vailable: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ppraisal.html>
- Stuckey, S. (1994). Keepers of the Fame? The Custodial Role of Australian Archives—Its History and Its Future.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mish, S., Piggott, M. eds. Clayton, Vic.: Ancora in association with Australian Archives.
- Upward, F. (1994). In Search of the Continuum: Ian Maclean's 'Australian Experience' Essays on Recordkeeping.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In_search_of_the_continuum_Ian_Maclean_s_Australian_Experience_Essays_on_Recordkeeping/4060014
- Upward, F.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vailable: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Structuring_the_records_continuum_-_part_one_postcustodial_principles_and_properties/4037445/1

Upward, F. (2000). Modelling the continuum as paradigm shift in recordkeeping and archiving processes, and beyond - a personal reflec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10(3), 115-139.

Wickman, D. (1999). What's new? functional analysis in life cycle and continuum environments. *Archives & Manuscripts*, 26(1), 114-127.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Myoung-Hun (2009).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Seoul: Jinlitamgu.

Kim, Myoung-Hun (2010). Records continuum, appraisal and archival contents: building the concept of archival content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3), 131-153. <https://doi.org/10.1633/JIM.2010.41.3.131>

Kim, Myoung-Hun (2021a). A study on the origin of record continuum theor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record lifecycle model.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68, 5-3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Kim, Myoung-Hun (2021b).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record continuum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focusing on meaning and nature of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1(3), 1-16.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3.001>

Lee, Seung-Eok (2001).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Regime'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examin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 by PRA act.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4, 31-62. <https://doi.org/10.20923/kjas.2001.4.031>

Seol, Moon-Won & Lee, Seung-Eok (2021). Transforming archival appraisal in digital environments.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67, 57-97. <https://doi.org/10.20923/kjas.2021.67.057>